

씨원아일랜드 주민 상생 '헛구호'

백길해수욕장 이용객 편의 무시
해송림 전정 사업 소음 '극심'
비대위, 오는 9일 대규모 집회

썬지오그룹이 신안군 자은면에 건립한 씨원아일랜드가 지난 1일부터 영업에 들어갔으나 여전히 어수선한 분위기다.

리조트와 호텔 주위는 페인트통과 라바콘이 늘어서 있고 진입로 구간은 여전히 공사중으로, 비산먼지가 날리는가 하면 주차장은 모래와 흙이 뒤범벅된 상태였다.

패적인 시설로 휴양의 차이를 만들겠다는 각오가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말을 맞아 30~40명의 관광객이 자은

면 백길해수욕장을 찾았으나 안전요원은 찾아볼 수 없고 해송림 전정 사업으로 소음 또한 극심했다.

해수욕장에는 '리조트 화장실을 이용 할 것'을 권유하는 안내문이 붙었으나 이용객들은 도보로 3분가량을 왔다, 갔다하는 번거로움과 샤워 시설 미비에 불만을 쏟아냈다.

백길해수욕장을 가기 위해 리조트를 경유해야 하는 상황도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2일 오후, 가족단위 관광객과 또 다른 어르신 일행은 리조트 건물 앞에 주차 후 땀방울을 맞으며 짐을 손수 옮겨 해수욕장으로 이동해야 했다.

리조트가 들어선 곳은 3km에 달하는 백사장 이 펼쳐져 그동안 주민과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백길해수욕장을 이용해 왔다.

되풀이되는 불편함의 연속은 당장 해결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오그룹과 자은면 주민들이 백길해수욕장 사용을 놓고 좁혀잡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오그룹측은 화장실은 리조트 내를, 샤워는 호텔 사우나 이용 때 할인을 적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호텔은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상태.

반면에 자은면 비상대책위원회는 "백길해수욕장은 대대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다"며 "사업 초기 공동으로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성의껏 지켜 상생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오는 9일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씨원리조트&라마다프라자호텔은 호텔 162실, 리조트 245실, 대형커벤션 등 총 407실 규모로 내년 6월30일까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다. /신안=이주열 기자

무안, 10만 인구 달성 '총력'

26개 핵심전략산업 보고회

무안군이 10만 인구 달성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3일 무안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관련부서 실과소장과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용역에서 제시된 26개 핵심전략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 용역은 2021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기관·사회단체장, 군청 간부공무원·읍면장의 심층면접, 주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진행했다.

이를 통해 86개 세부사업을 발굴하고 관련부서 검토 후 시행가능한 26개 사업(세부사업 46)을 확정했다.

이번 보고회는 용역에서 제시된 26개 핵심전략사업들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인구유입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에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각 추진부서는 1월부터 6월까지 실적과 추진 시 문제점,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 분야별 담당 팀장의 보고를 통한 점검을 진행했다.

핵심전략사업 26건을 살펴보면 보조사업 17건(일자리 5, 농업 5, 보건 3, 청소년 1, 보육 1, 다문화 1, 출산 1), 자체사업 9건(일자리 2, 농업 1, 교육 4, 보건 1, 청소년 1)으로 총 사업비는 1,092억 원이다.

김산 군수는 "앞으로도 분기별 보고회를 통해 핵심 전략사업들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함과 동시에 다양한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가 발굴해 인구 10만 도·농복합도시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안=박주현 기자



신안군은 최근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압해읍 송공지선 등 6개 지선에 고소득형 패류 14톤을 살포했다. /신안군 제공

신안, 고소득형 패류 14톤 살포

신안군은 최근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압해읍 송공지선 등 6개 지선에 고소득형 패류 14톤을 살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살포한 패류는 서해안 갯벌에서 자연 성장한 약 3cm 이상의 건강한 바지락과 모시조개(가무락) 2종의 품종으로, 병성 감정실시 기

관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검증된 종패다.

패류 살포지선은 어촌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품종별 서식 환경특성과 자연산 종패가 자생하는 점을 고려해 적지를 선정하는 등 패류의 생존율을 높였다.

신안군은 이번 패류 살포를 통해 관광객 체험 관광 활용과 함께 자원량 회복으로 어업인 소득 창출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패류 자원을 조성,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 2010년부터 패류 자원량 증강을 위해 갯벌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고소득형 패류인 바지락, 가무락, 백합 등 120여톤을 살포해 오고 있다. /신안=이주열 기자

강진소방서, 봄철 화재예방대책 '최우수'

강진소방서가 전남소방본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봄철 화재예방대책' 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3일 강진소방서에 따르면 봄철 화재예방대책이란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봄철기간(3~5월) 중 각종 안전대책을 분야별, 지표별로 세분화시켜 소방서 간 자율경쟁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소방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예방대책이다.

이번 평가는 ▲건설현장 및 선거관련 안전대

책 ▲다중시설 및 코로나 관련 안전점검 ▲주거 및 행사장 등 안전관리 ▲소방관서별 특수시책 추진 등 5개분야 8대과제 25개 세부지표를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강진소방서는 자체 특수시책인 '119메타버스'라고 안전을 잡다'와 '내 나이가 어때서~정춘119소년단' 등을 통해 세대간 소방안전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높은 기여를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진=한태선 기자

목포, 하계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모집

오늘부터 접수...49명 규모

목포시가 여름방학 기간인 오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3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기업·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모집규모를 49명으로 확대했다.

모집인원의 약 30% 이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대학생은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직장경험을 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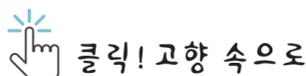
참여 대학생은 주 5일, 하루 5시간씩 근무(중식시간 제외)하며 2022년 목포시 생활임금이

적용돼 시간당 9,850원을 지급받는데 만근 시에는 약 118만원(세전)을 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대학생 또는 부모 중 1명이 목포시에 주소와 두고 있는 재학생으로 휴학생·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생을 비롯해 한 번이라도 동계 대학생 직장체험활동(기존 동·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에 참여한 대학생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4일부터 8일까지며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등을 목포시 일자리정책과에 직접 제출하고 접수번호를 발급받으면 된다. 선발은 공정성을 위해 대학생 참석 하에 전원 공개 추첨으로 진행된다.

/목포=박승경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진도군농협, 주거환경 개선 봉사

농협진도군지부와 서진도농협, 선진농협, 진도농협은 최근 관내에 거주하는 돌봄 대상자 13가구를 찾아 총 300만원 가량의 밑반찬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주거환경 개선 봉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서진도농협 고향생각주부모임 회원들과 함께 임회면 용호리의 돌봄 대상 가구 열 곳을 방문해 아침

부터 정성껏 만들고 준비한 밑반찬과 식료품을 전달했다.

이어 군내면의 돌봄 대상 가구를 방문해 도배·장판을 교체했다.

주명규 지부장은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병호 기자



강진 신전면지사협, 기저귀 지원

강진군 신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재가요양서비스 대상자와 중증 장애인에 20가정에 기저귀를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재가요양서비스 대상자와 중증 장애인 가정의 경우 매일 기저귀를 최소 3~4번 교체해야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 위생적인 생활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신전면지사협은 신규

특화사업으로 기저귀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사업비는 읍면지사협 특화사업비를 활용해 추진했다. 다음해부터는 협의체 자체 사업비를 활용해 사업대상자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박동열 위원장은 "지원할 수 있는 양이 많지 않지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



신안 팔금면, 철쭉공원 꽃길 조성

신안군 팔금면 철쭉공원에서 백계삼거리까지 3km 구간 도로변에 곱게 계속과 애기범부채꽃 등이 만개해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3일 팔금면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지역의 어르신들이 금계국 8만본, 사루비아 8만본, 애기범부채 6만본, 해바라기, 노랑꽃창포 등 총 30만본을 심고 가꾸 꽃길을 조성했다.

김명렬 팔금면장은 "신안군의 프로젝트 중 하나인 사계절 꽃 피는 섬 조성을 위해 지역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며 "금목서와 황금사철나무, 유채꽃, 금계국, 구지뽕 등 꽃과 나무를 심어 황금의 섬으로 거듭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